

明·淸時代 新安醫學의 國際的 交流에 관한 一考察

¹이민호, ¹안상우

¹한국한의학연구원

Studies on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in Myung and Chung Dynasty

¹Lee, Min-ho, ¹Sang-woo Ahn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of international exchange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at the time of Myung and Chung Dynasty, which is one of the most famous regional traditional medicine. The internal reason for the active exchange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throughout the ocean was that its major theories were mostly based on Confucianism, which was also the major current in Korea and Japan at the time. This led to active interchange between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of China and Japan and Korea. Secondly, the proliferation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was achieved with great help from developing printing operations at the time. Also, the active operation of practitioners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such as the attempt to advance to foreign countries along with the 徽州商人 offered an opportunity to introduce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The international traits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can be easily proved by numerous quotes of its classics in many significant classics of Korea and Japan. The influence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to Korea started from the Chosun Dynasty;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東醫寶鑑』 of Huh Jun and 『麻科會通』 of 丁若鏞 are the few examples of classics of Korea with quotes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The influence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on Japanese medicine can be found much before, since Nanbeichao Dynasty. However, the time when many books were imported was during Myung and Chung Dynasty. Also, some of the classics of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mentioned in "醫籍考" remain only in Japan and not in China; this shows the active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Keywords : Medical School of Sin-an (新安醫學)

I. 서론

新安醫學은 歷代 新安(徽州) 지역에서 출현한 醫家·醫籍을 가리키는 것으로 北宋時期에 형성되어 明 成化年間(1464-1487)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¹⁾ 『新安醫籍考』에 의하면 사료에 기재된 송원 이래新安 지역에서 활동한 의가는 500여명인데, 이 중 405 의가가 835종의 의

적을 남겼다고 하며, 이를 다시 분류하면 醫經類 107종, 傷寒類 70종, 診法類 40종, 本草類 54종, 鍼灸類 22종, 內科類 210종, 外科類 15종, 産婦人科類 24종, 소아과류 84종, 五官科類 30종, 醫案醫話類 77종, 養生類 15종, 叢書類 77종 등에 달한다.²⁾

新安醫學이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明 中期부터 淸末까지는 국제적 교류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新安醫學은 단순히 徽州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의 다

접수 ▶ 2009년 12월 7일 수정 ▶ 2009년 12월 15일 채택 ▶ 2009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E-mai: answer@kiom.re.kr

1)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3, 1996, pp.9-10.

2)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p.5.

른 지역은 물론이고 조선과 일본 등지에도 전해졌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신안의학의 국제적 교류의 양상과 그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종래 이 분야에 관한 연구로는 新安醫學과 朝鮮³⁾, 新安醫學과 日本⁴⁾ 관계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의학서적에 신안 지역 의서가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신안의학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안의학의 국제적 성격을 가능하게 했던 요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신안의학이 신안 지역 내부지 머물지 않고 국제적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內的 動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신안의학의 어떤 책들이 조선과 일본에 전해져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新安醫學 國際的 交流의 內的 動因

明·清時代 新安醫學이 신안 지역 내부에 머물지 않고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明·清時代 徽州는 유학의 전통이 매우 강한 곳으로 의학 서적에도 그러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점은 조선과 일본이 모두 유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안 의서를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중국의 다른 지역 의학도 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신안의 경우 의학 발전에 유학이 절대적인 작용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徽州는 ‘東南鄒魯’, ‘文化之鄉’, ‘禮義之邦’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宋代 性理學의 대가들인 二程과 朱熹가 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雍正 重刻『程朱闕里志』에는 “이정과 주자 모두 그 선조가 歙縣 黃墩에서 출생하였기에 程朱闕리라 칭한다.”⁵⁾ 고 하였다. 이학이 성행했던 程朱闕里에서 신안의학은 정주이학의 영향을 받아 의가의 사상이 형성되었다.⁶⁾

유학이 발달하고 교육을 중시했던 휘주에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유의를 배출하였다. 신안

의학은 ‘醫出于儒’, ‘大醫必本于大儒’, ‘醫雖藝術, 必先通儒而後學’, ‘醫而儒, 明醫也’,라 하였으니 의학 인물 가운데 특히 유의의 비중이 높았다. 二程은 ‘學者須識仁’, ‘五常之德統于仁’, ‘仁義之理就是天理’라 생각하였는데 신안의학은 이러한 사상을 계승하고 실천하였다.⁷⁾

둘째 明 中期 이래 신안의서가 외부에 소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출판문화, 특히 醫藥學 관련 서적과 商業書·路程書⁸⁾의 활발한 간행과도 관계가 있다. 중국에서 서적의 출판은 16세기 중반부터 격증하기 시작한다.⁹⁾ 물론 이러한 서적 출판의 격증은 상인이 참여하는 도서시장의 형성과 도서의 상품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었다고 할 수 있다. 『道光徽州府志』, 『藝文志』에 근거하여 明·清 양대에 걸쳐 휘주 지역에서 출간된 經·史·子·集類의 서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	明代	清代	合計
經	162	310	472
史	185	121	306
子	237	278	515
集	514	579	1093
合計	1098	1288	2386

<표1> 明·清代 徽州에서의 書籍 出版 現況¹⁾

徽州 지역의 의학 발전은 徽商의 경제적인 원조와 의서의 출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¹⁰⁾ 徽州 최대의 출판가인 吳勉學은 10萬 銀兩의 자본으로 평생 출판 사업에 종사하면서 醫籍의 출판에 대한 공헌이 매우 컸다. 그가 校刊한 經, 史, 子, 集 및 醫書는 수백종에 달하는데 萬曆29년에는 王肯堂『古今醫統正脈全書』 44종 215권을 校刊하였다.

3)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 23-6, 2004.

4)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 2000-2.

5) 雍正重刻『程朱闕里志』: “二程與朱子所由出, 其先世皆由歙黃墩徙, 故稱程朱闕里.”

6)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9.

7)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學報』 23-4, 2004, p.10.

8) 路程書는 종래 商業書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었으나, 최근에는 두 종류의 서적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路程書에 관해서는 山根幸夫, 「明代의路程書について」, 『明代史研究』 22, 1994; 谷井俊仁, 「路程書の時代」,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등 참조.

9) 宋代 이래 인쇄술의 발달로 많은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嘉靖年間 이후 약 100년 동안에 발행된 서적의 수량이 宋·金·元에서 明 正德年間까지 약 600년 동안 간행된 것보다 많다. 이를 통해서 宋 이래 발전된 인쇄 사업이 명말에 이르러 큰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大木 康, 「明末江南における出版文化の研究」, 『廣島大學文學部紀要』 50卷 特輯號1, 1991 참조).

10)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8.

번호	書名	纂輯人	卷數	번호	書名	纂輯人	卷數
1	續素問抄	汪機	3	2	素問抄補正	丁瓚	10
3	內經要旨	徐春甫	2	4	素問注	吳崑	24
5	素問靈樞類纂約注	汪昂	3	6	藥性要略大全	鄭寧	11
7	本草蒙筌	陳嘉謨	12	8	本草備要	汪昂	4
9	增訂本草備要	汪昂	4	10	補訂脈訣刊誤	汪機	2
11	脈語	吳崑	2	12	鍼灸問對	汪機	3
13	鍼方六集	吳崑	6	14	傷寒選錄	汪機	8
15	傷寒論條辨	方有執	8	16	傷寒論後條辨集解	程應旂	15
17	傷寒論贅餘	程應旂	1	18	金匱要略直解	程林	3
19	丹溪心法	程充	4	20	丹溪心法附餘	方廣	24
21	醫經句測	程應旂	2	22	醫學原理	汪機	13
23	石山醫案	汪機	3	24	醫讀	汪機	7
25	名醫類案	江瓘	12	26	古今醫統	徐春甫	100
27	醫方考	吳崑	6	28	赤水玄珠	孫一奎	36
29	孫氏醫案	孫一奎	9	30	醫旨緒餘	孫一奎	4
31	墨寶齋集驗方	鄭澤		32	醫宗粹言	羅周彥	14
33	醫按	程崑	5	34	古今名醫滙粹	羅美	8
35	醫方集解	汪昂	3	36	醫方湯頭歌括	汪昂	1
37	醫鑑	李文來	10	38	易簡方論	程履新	6
39	醫學心悟	程國彭	5	40	高宗御定醫宗金鑑		90
41	臨證指南醫案	葉桂	10	42	外科理例	汪機	8
43	外科十法	程國彭	1	44	婦科心鏡	徐春甫	3
45	幼幼滙集	徐春甫	3	46	兒科方要	吳元溟	1
47	達生編	亟齋居士	1	48	慈幼筏	程雲鵬	12
49	痘治理辨	汪機	1	50	痘治附方	汪機	1
51	痘疹泄秘	徐春甫	1	52	痘疹心印	孫一奎	2
53	家傳經驗痧麻痘疹秘集	程嘉祥	5	54	痘科切要	吳元溟	1
55	運氣易覽	汪機	3				

<표3> 『醫籍考』에 보이는 新安醫書

그밖에 『痘疹大全八種』, 『儒門親事』와 몇몇 單驗方을 수집하여 『師古齋滙聚簡便單方』 6권을 세상에 내놓았다.¹¹⁾ 이 시기 상업 자본이 투하되어 간행된 의학서적의 보급은 그만큼 의학 지식을 많은 사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 의학의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외국과의 서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셋째 明清代의 新安醫家は 당대 최고의 상인집단이었던 徽商과 함께 대외 진출을 시도하여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다. 이들의 활동 영역이 대단히 넓었기 때문에 대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고, 신안의학의 소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휘상의 활동 영역이 광범위했던 것은 ‘無徽不成鎮’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들은 특히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상업 무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²⁾ 徽商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축적하여¹³⁾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였고, 경영 항목 또한 매우 다양했다.¹⁴⁾ 그 중에는 외지에서 약재업에 종사했던 상인도 적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二刻拍案驚奇』 卷37에는 遼陽에서 활

약했던 휘상 程案과 程宰 형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¹⁵⁾

徽商의 대외진출이 늘어나면서 당시의 명외들도 상인들과 함께 외지로 진출하였는데, 특히 자본력이 충분한 약상은 상업과 의업을 병행하기도 하였다.¹⁶⁾ 상인과 함께 의사가 외지로 진출했던 것은 상인들의 건강상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⁷⁾ 이처럼 徽商의 활발한 대외 활동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외지에 나와 의료업에 종

11)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8.
 12)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p.58.
 13) 그들이 축적한 상업자본의 유형에는 ① 공동자본, ② 위탁자본, ③ 혼인자본, ④ 원조자본, ⑤ 유산자본, ⑥ 관료자본, ⑦ 노동자본 등이 있다(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三), 『東洋學報』36-2, 1953, pp.66-74).
 14)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 『東洋學報』36-2, 1953, pp.32-60 참조.
 15) 程案과 程宰 형제의 이야기는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 『東洋學報』36-2, p.47 참조.
 16)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p.236.
 17)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p.527.

번호	書名	纂輯人	卷數	板本	비고
1	黃帝內經素問吳注	(明)吳崑	24	元祿6年(1693)書林吉村吉左衛門刻本, 寶永3年(1706)刻本	
2	張卿子傷寒論	(明)張遂辰	7	日本刻本	
3	金匱要略直解	(淸)程林	3	日本抄本	
4	傷寒論後條辨	(淸)程應旄	15	寶永元年(1704)博古堂刻本	
5	脈訣刊誤集解, 脈訣刊誤集解附錄	(元)戴起宗撰, 朱升節抄 (明)汪機補訂	4	寬永19年((1642)刻本	
6	藥性要略大全	(明)鄭寧	11	元祿3年(1690)摘抄本	中國不在
7	本草備要	(淸)汪昂	4	亨保13年(1728)濟世堂刻本	
8	鍼灸問對	(明)汪機	3	日本抄本	
9	醫方考附脈語	(明)吳崑	8	元和5年(1619)刻本, 寬永6年(1629)久田勘兵衛刻本, 慶安4年(1651)秋田屋平左衛門刻本(無脈語), 元祿10年(1697)秋田屋平左衛門刻本, 日本抄本(無脈語)	醫方考 6卷, 脈語 2卷
10	丹臺玉案	(明)孫文胤	6	正保2年(1645)刻本	
11	赤水玄珠	(明)孫一奎	36	明歷3年(1657)刻本, 萬治3年(1660)刻本	
12	丹溪心法附餘	(明)方廣	24	寬文11年(1671)喜左衛門刻本	
13	程氏釋方	(明)程伊	4	文化元年(1804)索須桓德抄本	
14	醫經句測	(淸)程應旄	2	日本抄本	
15	聖濟總錄纂要	(淸)程林	26	文政6年(1823)江戸衛生館刻本	
16	醫學入門萬病醫衡	(淸)洪正立	6	延寶5年(1677)唐本屋喜右衛門刻本, 天和3年(1683)伊藤五郎兵衛刻本	
17	醫方集解	(淸)汪昂	3	亨保11年(1726)浪華書林田中氏刻吉野屋博文 堂藏版本	
18	湯頭歌括	(淸)汪昂	1	亨保9年(1724)大坂大野木市兵衛刻本	
19	外科理例	(明)汪機	8	嘉永元年(1848)鹿創格直抄本	
20	達生編	(淸)巫齋居士	2	安永3年(1774)浪華書肆柳原喜兵衛刻本	
21	活幼便覽	(明)劉瑒	2	日本抄本	
22	名醫類案	(明)江權	12	元和9年(1623)猪子梅壽刻本, 寬文元年(1661)野田莊右衛門刻本	
23	石山醫案	(明)汪機	3	元祿9年(1696)大坂澁川清右衛門刻本	
24	孫文垣醫案	(明)孫一奎	13	明歷3年(1657)刻本, 萬治3年(1660)刻本	
25	程原仲醫案	(明)程崙	6	日本抄本	
26	古今醫統大全	(明)徐春甫	100	日本刻本, 日本半半堂抄本	
27	醫宗金鑑	(淸)吳謙	90	天明6年(1786)抄本, 寬政3年(1791)天野俊英校刊本, 寬政12年(1800)大阪河內屋喜兵衛刊本	

<표2> 明·淸時代 日本에서 刊行·轉寫된 27種의 新安醫書

사했던 의가들을 많이 배출했기에 신안의학을 대외적으로 널리 소개할 수 있었다.

2. 朝鮮에 流入된 新安醫書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新安醫書가 한반도로 전입된 증

거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신안 의서가 한반도로 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초로 신안 의서가 조선에서 인용되기 시작한 것은 『東醫寶鑑』에서 보인다. 『東醫寶鑑』은 총 180여종의 의서를 인용하였는데¹⁸⁾ 그 중 신안 의서에 속하는 것으로는 張杲, 『醫

¹⁸⁾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81. 180여종의 인용서 중에는 朝鮮醫書 5종과, 非醫書 60여종이 포함되며, 인용

說』, 方廣, 『丹溪心法附餘』와 孫一奎, 『赤水玄珠』가 있다. 이처럼 신안의서가 『東醫寶鑑』에 인용되었다고 한 것은 신안의서가 한국에 전입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라 할 것이다.

『東醫寶鑑』의 뒤를 이어 1724년 周命新의 『醫門寶鑑』(8권)에는 方廣, 『丹溪心法附餘』가 인용되고 있다. 1798년 丁若鏞이 편찬한 『麻科會通』(7권)에는 方廣, 『丹溪心法附餘』, 汪石山, 『痘疹理辨』, 孫一奎, 『痘疹心印』, 吳謙, 『醫宗金鑑』이 인용되었다. 1799년 강명길의 『濟衆新編』(8권)에는 孫一奎, 『赤水玄珠』가 인용되었다. 1868년 황도연의 『의종손익』(12권)에는 장고, 『의설』, 徐春甫, 『古今醫統』, 方廣, 『丹溪心法附餘』, 孫一奎, 『赤水玄珠』, 吳崑, 『醫方考』, 孫文胤, 『丹臺玉案』, 吳謙, 『醫宗金鑑』, 汪昂, 『本草備要』가 인용되었다. 황도연이 시작하고 그의 아들 황필수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고종 21년(1884)에 편집·출간한 『方藥合編』(1권)의 권수 黃泌秀 序言에 “書例仿汪忍(認)庵『本草備要』·『醫方集解』合編之法”이라 한 것을 통해 汪昂의 『醫方集解』가 『方藥合編』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方藥合編』에 이르기까지 조선에서 편찬된 의서에 인용된 신안의서는 張杲, 『醫說』, 方廣, 『丹溪心法附餘』, 孫一奎, 『赤水玄珠』·『痘疹心印』, 汪石山, 『痘疹理辨』, 徐春甫, 『古今醫統』, 吳崑, 『醫方考』, 孫文胤, 『丹臺玉案』, 吳謙, 『醫宗金鑑』, 汪昂, 『本草備要』·『醫方集解』 등 총 11종에 달한다.¹⁹⁾ 한편 신안의서가 조선에서 간각된 서적으로는 張杲, 『醫說』과 吳崑의 『醫方考』·『脈語』가 있었다.²⁰⁾

3. 新安醫學의 對日交流

신안의서가 주로 출간된 시기는 明·淸時代로 명대 이전에 간행된 신안의서는 많지 않고, 일본에 전해진 것도 매우 적었다. 『新安醫籍考』에 의하면 가장 이른 시기의 신안의서로는 南朝 劉宋의 羊欣의 『羊中散雜湯丸散酒方』(1卷), 『療下湯丸散方』(10卷)과 『羊中散藥方』(30卷)이지만 이들 서적은 일본에 전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羊欣의 뒤를 이어 저술에 종사한 신안의가로는 당대의 楊玄操가 있다. 그의 저술로는 『素問釋音』(1卷), 『黃帝八十

一難經注』(9卷), 『八十一難音義』(1卷), 『鍼經音』(1卷), 『脈經音』(1卷), 『黃帝明堂經』(3卷), 『明堂音義』(2卷), 『本草注音』(1卷)이 있는데, 이 중 『素問釋音』, 『黃帝明堂經』을 제외한 6종이 876-884년 사이에 작성된 『日本國見在書目錄』에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서적은 당대에 이미 일본에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楊玄操가 저술한 서적은 이미 모두 전하지 않는데, 『難經集注』에 『黃帝八十一難經注』의 일부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本草注音』이 일본에 전해진 뒤 일본의 深根輔仁이 918년 편찬한 『本草和名』(현존)에서 일부 내용을 채록하고 있다.²¹⁾

宋代 新安醫家の 醫書가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는 張杲, 『醫說』(10卷)이 있다. 이 책이 일본에 전해진 시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현존하는 것은 일본 萬治2年(1659) 刻本과 抄本이 있다. 원대에는 신안의가의 의서가 일본에 전해진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明·淸 兩代는 신안의학의 전성시기로 의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명·청의가 배출되고, 편찬된 의서도 매우 많았는데 적지 않은 수의 서적이 일본에 전해졌다. 그 중 27종은 일본인에 의해 다시 출판되거나 轉寫되었다.(아래 표2 참조)

丹波元胤이 1826년 편찬한 『醫籍考』는 秦·漢부터 淸 道光初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의학 문헌 2,600여종을 수록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그가 친히 보고 아울러 ‘存’ 혹은 ‘闕(殘闕)’의 여부를 기록하고, 책의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醫籍考』에 실린 신안의서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 55종의 明·淸 兩代의 신안의서는 『醫籍考』가 편찬되기 이전에 이미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醫籍考』에 기재되어 있는 신안의적 중에는 현재 중국에는 전하지 않고 오직 일본에만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藥性要略大全』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汪機의 『傷寒選論』은 중국과 일본 모두 존재하지 않지만 丹波元胤의 서문을 통해 책의 작성 과정과 시기를 알 수 있다.²²⁾

서적 중 佚書가 40여종, 未見書籍이 14종이라 하였다.
 19)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 23-6, 2004, p.9.
 20)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 23-6, 2004, p.10.
 21)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 2000-2, p.22.
 22)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 2000-2, p.25.

III. 결론

본고는 明·清時代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의학인 신안의학의 국제적 교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당시 신안의학이 국제적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내적 동인으로는 조선, 일본 등에서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던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의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신안의학자가 유교 사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신안의학의 확산에는 인쇄 출판업의 발달도 크게 작용하였다. 휘주지역에서 인쇄 출판업의 성행은 전반적인 학문 발전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의 지식 확대와 국제적 교류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徽商과 더불어 대외진출을 시도했던 신안의학자의 광범위한 활동 역시 신안의학이 해외에 소개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신안의학의 국제성은 그들 의학 서적이 조선과 일본에 전해져 중요 문헌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안의학이 한국에 영향을 준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인데, 許浚의 『東醫寶鑑』은 물론이고 丁若鏞의 『麻科會通』 등 조선 후기 한국의학사의 중요 문헌들에서 인용되고 있다.

신안의학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남북조시대 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많은 의서가 전해진 것은 역시 명·청시대라 할 수 있다. 또 『醫籍考』에 기재되어 있는 신안의학 중에는 현재 중국에는 전하지 않고 오직 일본에만 남아 있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교류의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IV. 참고문헌

彭化銀, 「醫家群體-“新安醫學”淺探」,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3, 1996.
 王樂陶 主編, 『新安醫籍考』,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9
 王旭光, 「傳入朝鮮與韓國的新安醫籍」, 『安徽中醫學院學報』 23-6, 2004.
 章麗華, 王旭光, 「新安醫籍在日本的流傳」, 『醫古文知識』 2000-2.
 黃熙, 黃孝周, 「程朱理學與新安醫學之探討」, 『安徽中醫學院

學報』 23-4, 2004.
 山根幸夫, 「明代の路程書について」, 『明代史研究』 22, 1994.
 谷井俊仁, 「路程書の時代」,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大木 康, 「明末江南における出版文化の研究」, 『廣島大學文學部紀要』 50卷 特輯號1, 1991.
 李艷, 李梢, 「徽商與新安醫學的文化成因初探」, 『中醫教育』 15, 1996.
 張海鵬, 王廷元 主編, 『徽商研究』, 安徽人民出版社, 1995.
 牛淑平, 汪滬雙, 「中醫學史上的“新安醫學”流波」, 『黃山高等專科學校學報』 2-4, 2000.
 藤井宏, 「新安商人の研究」(二), 『東洋學報』 36-2, 1953.
 項長生, 項鴻, 「徽州的文化經濟與“新安醫學”」, 『中華醫史雜誌』 28-4, 1998.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